

文-安 야권단일화 답 안준 추석 민심

쏟침없이 앞치락 뒷치락...11월 중순까지 지켜보아야 할 듯

대선 민심의 1차 변곡점으로 통했던 추석 민심이 혼진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당통합 문제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야권 후보단일화 전망은 여전히 한 치 앞도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추석을 거치면 단일화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경향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특정 후보로의 몰림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 추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변화의 양상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문 후보는 안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접전을 펼치는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문-안 두 후보가 모두 단일화에만 성공하면 대권을 노려볼만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3자대결 구도도 예측이 쉽지 않다. 박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2, 3위라는 기

준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안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3자 구도에서도 안 후보와 격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직후만 해도 문 후보를 10~15% 포인트 가량 앞섰지만 추석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4~7%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좁혀진 조사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측은 아직 단일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지지율 제고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장, 안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국민적 동의'를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황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불속 단일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후보 역시 단일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다 지지율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호흡을

가다듬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논의는 빨라야 10월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3자 구도에서도 안 후보와 격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

또한, 단일화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도 난제다. 단일화가 이전투구 양상에서 벗어나 국민적 감동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어느 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선대위가 꾸려진 현재 상황에서 담판으로 단일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등으로 여론조사도 여의치 않은 데다 국민선거운동 경선도 이미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는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상황이라서 적절한 단일화 방법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후보 단일화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에 시작,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일이전인 11월 중순 무렵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 맞아 '현장 행보'

“남북경제연합 실현 개성공단 매우 중요”

민주당통합 문제인 대선 후보는 4일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남북문제를 주요 화두로 내세워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장충동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인들과 만나 '평화가 경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대위 내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멤버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10·4 선언 5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가졌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핵심공약인 '남북경제연합'의 실현을 위한 시험장으로서 개성공단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충동에 있는 철바지 제조업체를 들른 그는 "개성공단은 또 하나의 작은 통일"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남북통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존경한다"고 격려했다.

문 후보는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 교수와 대담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어온 대북정책의 기초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준

비했다"며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행보는 진보진영의 핵심 어젠다인 남북문제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민주당 10년의 노하우와 축적된 인재풀을 자산 삼아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 차별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에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부산을 찾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산으로 향해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영화인들과 '문화가 강한 나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통합 공동선대위원장단이 4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인영 김민영 이낙연 박영선 전순욱 김영경 제윤경 김부겸 안도현 이학영 등 10인이다. /연합뉴스

여야, 내곡동 특검 추천 '기싸움'

靑·새누리 "후보 재추천"...민주 "절대불가" 맞서

여야가 4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대선정국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통합이 진보 성향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따른 재추천을 공식 요구하고,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정말로 대통령

합집 내기가 아니라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원만하게 협의해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인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는 특검을 하고 특검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해 (그렇게) 합의된 것"이라며 "후보 추천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민주당 문제인 후보는 이날 "5일까지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조차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상조사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남 방문 이틀째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광주 충장로에서 "내곡동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유인영 대변인도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지명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공동선대위원장단 10명 인선

이낙연·김민영·전순욱·제윤경씨 등

민주당통합 문제인 대선 후보는 4일 대선기간 선대위를 총괄할 공동선대위원장단 10명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선대위원장단에는 박영선 김부겸 이인영 이학영 안도현 김영경 대선기획위원 6명 전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부겸은 사부처장, 사회화 기획인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고(故) 전태일 열사 아동생인 전순욱 의원, 호남 출신 4선인 이낙연 의원 등이다.

문 후보는 직속 자문기구인 고위권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경선 후보 등 경선 경쟁자 3명과 이학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한명숙 상임고문 등 7명을 위촉했다.

우상호 공동대장은 이날 오전 영등

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수(選數) 위주의 여의도 정치를 극복하고 능력 위주로 구성했으며, 계파를 뛰어넘는 탕평 선대위"라며 "여의도식 선거 방법에서 벗어나 정치와 시민사회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전 음식점에서 김두관, 정세균 경선 후보와 이 대표, 박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한 상임고문 등 고위권전략회의 멤버들과 함께 조찬 회동을 갖고 이런 인선안을 사전에 설명했다.

문 후보는 급주 안으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내주부터 정책 및 국정 운영 구상을 본격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전면 인적쇄신 고개

친박 2선 후퇴론 이어 유승민 의원 지도부 등 총사퇴 촉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 당직자 등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대선 위기관 속속 5선의 남경필 의원의 제기한 친박(친박근혜)계 2선 후퇴론에 이어 전면적 인적쇄신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박 후보의 선택이 주목된다.

개혁 성향의 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선대위 재구성을 비롯해 후보에게 전권을 백지위임하자"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남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 주변에 권력의 진공

상태를 좀 만들어줘야 한다"며 친박계 2선 후퇴론을 처음 제기한 데 이어 이날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조점'에 출연, "박근혜 후보는 그냥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 풀보기 싫어 안 뽑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는 당을 확 바꾸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측근인 이정현 공동대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서너명이고 그 서너명이 무슨 권력, 권력을 누리고 호가 호위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월 3일 수요일

충장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OPEN

웨버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 평일 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 주차안내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안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구분	대표이사	전화번호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온천 모뎀)	대1094㎡, 214489㎡	감정가 42억9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시정)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9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쌍촌동(원룸)	대294㎡, 21494㎡	감정가 5억9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689㎡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4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 금동(목욕탕)
 -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 감정가격 10억
 - ▷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 ☞ 용봉동(하이스포크)
 -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 감정가 515억7천
 - ▷ 매매가 160억(사설비발도)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 감정가 99억4천
-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북구 대촌동(2층공정)

-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 감정가 39억8천
- ▷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예시정)

-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 감정가 41억5천
- ▷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구분	대표이사	전화번호
근린시설/원룸	정원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정/토지	김종현이사	010-8227-7759

아파트/빌라

박미림정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공장,예식장,빌딩,토지,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